

실크로드와 통상의 길: 제2 중동 봄의 꿈



강사: **변현섭** 교수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에서 러시아지역학으로 석사학위를,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경영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롯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 점포개발팀장,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무관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계명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초빙조교수로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지역학 강의와 경제, 경영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2021), '문재인 정부의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2022),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발전 방안: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중심으로'(2022) 등 20여 편이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이외도 일본, 중국, 미국, EU, 인도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중앙아시아를 방문하여 협력을 논의하는 등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접근 전략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에는 일반인들이 평소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교류와 협력이 있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사업들을 보면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약상이 대단하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식 발전 모델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정치경제적 환경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진출 유망분야를 소개하고자 한다.